

## 1) 승평학교

『천라남도지』(1994년)에 따르면 1906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교명은 승평학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 편강의에 따르면 교명은 사립 승평학교이며, 1896년에 원래 향청 내에 설치되었고, 1908년 대수정(大手町 : 객사)으로 이설하였다. 1910년에 학부가 인정한 보조학교로 개칭되었다. 보조학교는 관립학교와 똑같이 재정을 지원하고 일본인 교원 1명과 한국인 교원 1명을 파견하여 운영하게 하는 학교이다. 당시 재학생은 156명, 직원은 교감 이하 7명, 5학급이며, 수업연한은 4년제였다. 1911년에 순천공립보통학교로 공립화되었다.

승평학교는 이 지역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의 동화교육이라는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오직 교육구국의 신념으로 민족사학을 설립·발전시킨 학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민족사학의 설립자에 대한 관련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